

# 맥추절을 지키라

## *Celebrate the Feast of Harvest*

신명기 (Deuteronomy) 16:9-12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가 라는 척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사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칭찬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해서 건강을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잘 안 하는 사람에 비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건강도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Some people say how healthy and happy we are depends on how much we appreciate our lives. According to medical doctors, if we talk and act with a thankful and loving mind, our health can be regenerated through parasympathetic nerves. That is to say that those who express their thankfulness to others are often much healthier than those who don't.

그런데 아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감사'에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감이 생기게 되자,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가 메말라 갈까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해 점점 더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However, many people are stingy with the expression 'Thanks'. Thanks seem to disappear when our lives became better economically. Why is it that our thankful mind is dried up (empty)? It's because our soul is getting darker gradually due to our sins.

로마서 1:21 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를 연습하고 배우야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 좋은 주변 성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눈여겨보면서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Romans 1:21 says, “For although they knew God, they neither glorified him as God nor gave thanks to him, but their thinking became futile and their foolish hearts were darkened.” For example, if we want to be a good prayer, we need to learn how to pray and practice praying often. However, it's not a good idea to go to church everyday for the sole purpose of being a good prayer. We need to practice and learn thankfulness as well. We must learn how to be thankful to God through His Word. We can also watch other members who have good and faithful lives and that know how to be thankful.

영국의 성경 주석가 메튜 헨리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Matthew Henry, an England Bible commentator, said, “Thanks are the same as plus (+). If we thank everything, God’s blessing will be added. But grudge and discontent are the same as minus (-). It will take whatever you have in your life.” If you are thankful in your life, your life will get better. If you complain in your life, your life will get worse.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아예 절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감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감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것을 기대하셨습니다.

God taught the Israelites how to give thanks periodically in order to live a thankful life. As God bestowed grace upon the Israelites, they would naturally learn how to thank God through periodic feasts and celebrations. God was expecting them to give thanks.

우리는 오늘 맥추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맥추절과 연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동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맥추감사주일을 지켜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Today is the Feast of Harvest Sunday in the Jewish calendar. When we look at today’s text, there are four key verbs in it. Through the four key verbs, we can learn how to keep the Feast of Harvest Sunday.

### 1. 지키라 (Celebrate)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동사는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10 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지키라는 단어를 ‘Celebrat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경축하다, 의식을 거행하다, 찬양하다, 덕을 기리다’라는 의미입니다.

The first verb is “Celebrate”. In verse 10, it says, “Then celebrate the Feast of Weeks to the LORD your God by giving a freewill offering in proportion to the blessings the LORD your God has given you.” The word celebrate means to commemorate, compliment, and praise.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원망, 불평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시비, 다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맥추절을 통해 우리들이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God's people must come before Him this day and should thank him for his grace and blessings that he gives us. Thankfulness is one of God's commands. Yet, do we have any grudges or discontent in our lives? Do we have any quarrels or disputes? But today we need to be resolute in putting all of this behind us and being thankful to God. God wants us to transform into thankful people through the Feast of Harvest.

미국의 어떤 부흥사가 집회 장소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는데, 어느 뚱뚱하고 무례한 여자가 아이를 다섯이나 데리고 옆에 앉더랍니다.

이 여자가 아이들과 함께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자기는 구석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불평이 속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럴 경우는 무슨 감사를 드려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의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There once was a guest speaker for a revival service. He got on the bus to go to service but there was a lady who was big and rude sat beside him with her five children. He was pushed to the edge of the long seat. His head was full of complaints but suddenly God's Word,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came to his mind and he thought how could I be thankful in this situation? So he prayed, "Thank you God, thank you so much for not letting my wife be just like this lady."

그렇습니다.

감사의 사람에겐 무엇이든지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감사거리가 무엇인가를 찾지 말고 아예 무엇이든지,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That's true. If you are a person of thanksgiving, you can be thankful in every situation. I hope that all of you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 2. 드리라(Give)

두 번째 동사는 '드리고'입니다.

10 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드리고'라는 말씀은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준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The second verb is "Give". When you look at verse 10 it says, "Celebrate the Feast of Weeks to the LORD your God by giving a freewill offering in proportion to the blessings the LORD your God has given you." Here 'Give' means that when you come before God, you should bring Him a gift and thank Him.

물론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감사의 한 방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입술의 감사와 동시에 마음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재물과 쉽게 밀착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Of course, we can express our thanks by our lips.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ways of giving thanks. However, the real thanksgiving that God wants from us is a thanks that comes

from the bottom of our heart. God knew though that we have a tendency to allow our heart follow after our materialistic wants.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의 마음이 자꾸 그곳에 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The more money that people obtain, it is strange that that their heart will be there with it. Even though you are a good Christian, you cannot disagree about this fact. It's not different with pastors. Their heart goes to their treasure despite themselves. So Jesus said,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는 빈손이 아닙니다.  
예물을 손에 들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이 마음을 다해 자원하는 예물로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The thanksgiving that comes from the bottom of our heart won't allow us to come empty handed. Its not just having the material in your hand as you offer it, but rather its that your giving your heart as an offering to God. That is thanks coming from your heart.

### 3. 즐거워하라(Rejoice)

세 번째 동사는 ‘즐거워하라’입니다.  
11 절을 같이 봅시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진정한 감사는 기쁨과 함께 오는 법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날이 감사절입니다.

The third verb is “Rejoice”. In verse 11 it says, “And rejoices before the LORD your God at the place he will choose as a dwelling for his Name--you, your sons and daughters, your menservants and maidservants, the Levites in your towns, and the aliens, the fatherless and the widows living among you.” True thanksgiving comes together with rejoicing. The Feast of Harvest Sunday is a day that we rejoice with a thankful mind.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날, 남녀노소,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날이 맥추감사절인 것입니다.  
However, when you look at verse 12, it says do not rejoice alone, but rejoice together with others. “Rejoice with your sons and daughters, your menservants and maidservants, the Levites in your towns, and the aliens, the fatherless and the widows living among you.” The Feast of Harvest Sunday is a day that we should care about the poor and weak, and rejoice with them no matter who they are.

그렇다면 무엇을 즐거워해야 합니까?

15 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칠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했습니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미래형입니다.

Then, what are we rejoicing for? In verse 15, it says, “For seven days celebrate the Feast to the LORD your God at the place the LORD will choose. For the LORD your God will bless you in all your harvest and in all the work of your hands, and your joy will be complete.” Look at this text carefully. What did the Bible say? Does it say that we should rejoice for the LORD your God blessed you? Or does it say that we should rejoice for the LORD your God will bless you? It says that we should rejoice for the LORD your God will bless you. It is a sentence written in a future tense.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 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래에 축복이 올 것을 믿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We can give thanks to God even though we have nothing right now. The reason why is that because God is our father. Anyone can give thanks for whatever they have received in the past. However, we who are God’s people should rejoice with good faith for the LORD our God will bless us in the future.

#### 4. 기억하라(Remember)

마지막 네 번째 동사는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2 절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왜 이스라엘이 맥추감사주일에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은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었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The forth, and last, verb is “Remember”. Verse 12 says, “Remember that you were slaves in Egypt, and follow carefully these decrees.” Why should the Israelites give thanks to God on The Feast of Harvest Sunday? Because they were set free from being slaves in Egypt. Through the feast of harvest, the Israelites remember how they became slaves. It means that should not forget how God saved them as slaves in Egypt and led them to escape into the desert.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교회도 지금 사막을 건너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옛날을 생각하며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보다 풍족하지도 못하고 교회 생활이 재미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결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꿈이 없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40 일  
걸리는 거리를 40 년 동안 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감사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교회도 이 사막의 길을 지나는데 40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Our church is in a similar situation. Maybe our church is now passing through a desert. We may have been complaining as we compare today with the past. We may be able to say that our church is not as financially well off as it was before and there is no fun in going to church now. However we never know when God's time is. The Israelites didn't have any faith and vision of God's will for them. So instead of it taking 40 days to cross the dessert, it took them 40 years to cover the same distance. If we do not give thanks, or rejoice, or remember that God will bless us, our church also may take 40 years to pass through this desert.

오늘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마귀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에서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What we have to remember is that by celebrating the Feast of Harvest Sunday we become God's people because we were set free from Satan, death, hell, and sin. We must remember Jesus' death on the cross. The cross is a symbol of our thanksgiving. We should live with thanksgiving as we remember that Jesus saved us from our sins and curses by dying on the cross for you and me.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저는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혹시 불평과 원망으로 메마른 가슴을 안고 힘겹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배우고, 훈련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Beloved sisters and brothers, I have a question for you. Are you good at giving thanks? Or are you good at complaining? You and I should be taught and trained about thanksgiving in keeping the Feast of Harvest Sunday. I pray that we all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